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4. 4.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해상인권 보고가 오피버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권고 ... 3
2. 미국, 알래스카 어업 규제를 놓고 연방정부의 편을 들 4
3. 중동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운송 시장 불확실성 증가 5
4. EAF, 중국 원양 선단 IUU 어업 및 인권 유린 문제 주목 6
5. 제8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보도자료 7
6.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FFA) 간 참치 조약 갱신 8

□ 2015년 이후 의심쩍은 상황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최소 14명의 옵서버가 직면한 위험한 상황을 보고

- 해상인권(HRAS) 및 전문 옵서버 협회(APO)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어업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옵서버가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함.

* HRAS: Human Rights at Sea

** APO: Association of Professional Observers

- 상업용 어선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옵서버들은 어부와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있으나, 국제 해사법이 자국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국들이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서버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때문에 종종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옵서버 보험 및 선박 책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무엘 아바야티의 사례와 같이, 옵서버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폭행, 괴롭힘 생계에 대한 위협을 감내함.
- HRAS는 투명한 보고, 선박 내 통신장치, 옵서버 역할의 전문화, 법적 보호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함.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치적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함.
- 보고서의 배포는 옵서버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얻기 위해, 시민 사회 단체와 유럽 위원회르 ครอบคลุม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포함함.

※ 출처: SeafoodSource¹⁾

1)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k-ngo-report-sets-recommendations-for-prioritizing-and-codifying-observer-safety> ('24년 04월 29일 검색)

- 연방판사가 쿠스코웜 강 어업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 및 쿠스코웜 강 부족간의 어류 위원회의 손을 들어줌.
 -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쿠스코웜 강 지역을 따라 수년간 대립해왔음.
 - 연방정부는 보조어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주 정부는 모든 알래스카 주민에게 어업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알래스카 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2024년 3월 29일 미국 지방법원 샤론 글리슨 판사가 발표한 판결은 쿠스코웜 강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어업 규제를 지지함.
 -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전통적인 권리를 쟁취한 것이라 승소를 축하하며, 이 결정은 지속가능한 관리 및 문화적 활력을 강조하며, 지역민과 토착민의 권리를 강조함.
 - 부족과 원주민 단체들은 연방의 과도한 접근에 대한 우려 및 주 자원관리 에 대한 잠재적인 선례를 인용하여 판결에 항소할 계획임
 - 분쟁은 천연자원과 토착민의 생존권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연방과 주 당국 간의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함.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judge-sides-with-feds-over-kuskokwim-river-fishing-regulation> ('24년 04월 29일 검색)

- 중동 국가들간 긴장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 운송 분야에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4월 13일, 이란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이 포르투갈 기국 컨테이너 선박, MSC Aries,를 “해양법을 위반한” 혐의로 압류하였음
 - 선박은 이스라엘 사업가 Eyal Ofer에 의해 부분 소유되고 있어
 -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 고조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은 선박 압류로 주요 무역 노선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음
 - 수에즈(Suez) 운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간의 해산물 운송에 중요한 요충지임
 - 수에즈 운하 주변의 해운 활동의 방해는 중대한 지연, 비용 증가 및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화물 운송 비용 등이 증가하여 국제 무역 안정성에 변수가 될 수 있음
 - 호르무즈(Hormuz) 해협 및 바블 만다브 해협(Bab-al-Mandab Strait)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만큼 이 해협들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어떻게 국제 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됨

※ 출처: SeafoodSource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middle-east-tensions-rise-causing-potential-supply-chain-bottlenecks-for-global-seafood-industry-hapag-lloyd-releases-strategy-2030> ('24년 04월 29일 검색)

- EJF의 보고서 ‘Tide of Justice’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선은 지속적으로 남서부 인도양에서 IUU 어업을 행하고 있으며 선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 보고서는 남서부인도양의 중국 선단에 탑승한 선원들 44명을 중심으로 면접하였음
 - 모든 면접자가 중국 선단에 대하여 인권 침해 또는 불법 어업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 면접자 중 80%는 상어 피닝을 목격하였고, 59%는 고래상어와 같은 멸종 위기 또는 취약 어종을 목표 어획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100%의 면접자들이 강제 노동 및 취약한 노동 환경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남
 - 다수 면접자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모잠비크이며 이들에 따르면 2017-2023년 사이 중국 참치 연승선에서 자살을 포함하여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어업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안국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수의 학대 신고 및 형편없는 노동 및 생활 환경은 중국의 규제 집행 및 공동 책임의 실패임을 나타냄
 - 해당 선박들의 어획물들은 유럽, 미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주요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상세한 조사 및 철저한 검토키 필요함
 - EJF는 다양한 선박들의 불법 어업 및 인권 유린에 대한 정황을 신고하고 고발함으로써 어업의 투명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길 기대

※ 출처: SeafoodSource⁴⁾

⁴⁾<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ejf-analysis-of-china-s-distant-water-fleet-alleges-connections-to-iuu-human-rights-issues> ('24년 04월 29일 검색)

-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가 2024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대면과 화상으로 동시에 개최되었다. 회의는 오타 신고우(일본)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다. 총회 직전에 제6차 재정위원회와 제7차 기술이행위원회가 4월 13일과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각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9개 회원, 협력적 비회원인 파나마, 8개 옵서버 단체로부터 18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태평양 공치 보존관리조치를 개정. 여기에는 자원상태 개선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임시 어획통제규칙 채택이 포함.
 - 전채 보존관리조치 개정 및 전채 옵서버 제도 개발 노력을 약속.
 - 참고등어, 북서태평양 및 북동태평양 저층어업, 선박감시시스템 보존관리조치 개정.
 - 소하성 어종(연어) 목표 조업 및 보유를 금지.
 - 어선 내 근로표준 결의를 채택.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및 북태평양 참치 및 참치류를 위한 국제 과학위원회(ISC)와 같은 지역 기구들과 협력을 강화.
 - 2024년 NPFC IUU 선박 목록 채택.
 - 연례회의 사전 회의문서를 공공에 제공.
 - 차기 연례회의는 2025년 3월 24-27일 일본 동경 외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출처: www.npfc.int⁵⁾

5) <https://www.npfc.int/meetings/8th-commission-meeting> (4월 18일 보도자료)

- 2024년 3월 28일 피지에서 미국 국무부와 태평양 도서국 기구(FFA)는 미국 참치 선단들에게 17개 태평양 도서국 EEZ 내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남태평양 참치 조약의 갱신을 합의하였다.
- 기존 남태평양 참치 조약은 1988년에 발효하였고, 최근 갱신으로 합의사항은 2033년까지 계속된다. 본 조약 하에서 운항하는 미국 선단들은 2024년에 태평양 도서국 EEZ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허가된다. 동 조약은 2025년 이후에 대해 합의된 최종 수정문의 공식 채택을 앞두고 있다.
- 미국 참치 선단들에게 입어를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6천만불을 FFA에 지불하고 또한 업계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2023년에 태평양 도서국들의 경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1천만불을 제공하였다.
- “제공되는 지원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기후변화 영향을 겪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고 FFA 사무총장 Manu Tupou-Roosen 박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본 참치 조약은 FFA와 미국 간 관계에 있어서 초석이다. 이 조약은 불법 어업 근절,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당사국들간 협업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Roosen 사무총장은 본 조약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미국은 2023년 10월 하원에서 양당 합의로 남태평양 참치 조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의회는 태평양에서 우리가 협상한 참치 합의들이 우리 선단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사모아 하원의원 Aumua Amata이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참치 업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외교적 및 법적 노력이 우리 선단들의 입어 안정성을 가져온다. 모든 미국 정책가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한 식량원으로서의 참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출처: www.nationalfisherman.com⁶⁾

6) <https://www.nationalfisherman.com/west-coast-pacific/pacific-islands-us-tuna-treaty-signed> (4월 16일 기사)